수평적 사고로의 전환

우리는 어떤 상화에 대한 현상을 분석하고자 할 때, 논리적인 전개과정을 체계적으로 거쳐야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물론 학술연구 분야에서는 논리적인 수직적 분석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하지만 경영컨설팅 업무수행 분야에서는 수직적 분석만으로는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 나아가 분석결과에 대한 개선방향을 정확하게 짚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전략적 사고방법으로의 전환을 위해, 수평적 사고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분석업무방법과 평가기준을 다 변화시켜야 한다.

그럼 수평적 사고방법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뚱딴지 같은 엉뚱한 생각을 말하는 것이다. 사고의 방향과 전개과정을 논리적인 체계보다는 비논리적인 판단력과 통찰력으로 엉뚱한 발상을 찾아내는 것이다.

인간의 직감력과 잠재의식은 대부분 경험에 의한다고 하였다. 그 경험의 과정 속엔 항상 수직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저장되어 있다.

우리는 어떤 사물을 보거나 직면한 상황을 판단하고자 할때 수직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그 기준에 근거하여 적당한 합리성을 찾고자 한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합리적이고 원칙론적인 것은 아니다.

인간은 왜 바른 자세에서 뒤를 돌아볼 수 없을까. 고개를 돌려보아도 좌우 180도 정도밖에 바라볼수 없다. 뒤를 보려면 몸을 뒤로 돌려야 한다.

뒤쪽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산업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얼마나 많이 발생되고 있는가. 앞쪽만 주시하고 일을 하다간 뒤쪽에서 천정크레인이 움직이고 지게차가 운행되고 어떤 물체가 낙하하여도 상황을 판단하지 못한다. 어떻게 하여야 할까

눈 하나를 뒤통수에다 갖다 붙이면 간단하게 해결된다. 의학적인 수술과정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의학은 남녀의 성도 변경시킬 수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 수직적 사고의 기준과 그 인식의 틀이 문제다.

남녀의 성을 바꾸는 것도 받아들이면서 고작 눈의 위치를 조금 바꾸었다

고 해서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그건 아마 인간적 가치보다 동물적 기준으로서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일 것이다.

수직적 사고의 틀이 뿌리 깊게 박혀있어 그 두 눈의 위치에 따른 신체적인 효율성과 합리성은 평가조차 하지 않게 된다.

물론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발상이지만 수평적 사고력의 바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수직적 사고의 한계점이 창의적인 도전과 무한한 아이디어를 제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한계점을 벗어 던질 수 있는 가치관과 사고기능이 바로 수평적 사고방법이다. 이것은 근시안적인 문제해결 방법이 아니다. 총제적으로 유추하고 동태적인 상호작용관계로서 추론하여 가는 것이다.

여기서 수평적 사고방법의 기준과 원칙을 살펴보자.

첫째, 상황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진 여러 가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내야 한다.

결국 수직적 정보나 인식구조를 재편성하여 문제해결에 대한 접근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최초의 상황속에 있던 수직적 사고의 제약이 그 뒤에 발생하는 유이한 상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한 후, 이어 발생한 새로운 발상과 아이디어를 먼저 발생된 원래의 상황에 접근시켜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둘째, 여러 가지 측면으로 사물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찾아내고 직감력과 잠재의식도 길러져야 한다.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상황은 있을 수 없다. 한 가지 충족되면 또 다른 부문에서는 반드시 새로운 문제점이 제기되거나 내포되어 있게 된다. 따라서 어떤 사물을 평가하거나 상황을 분석하고자 할 때, 양극단의 측면만을 바라보아서는 그 문제를 접근 할 수가 없게 된다.

주어진 원칙의 틀을 벗어나야 한다.

직무분석 과정에서는 가설검증의 과정도 필요한데 중요한 것은 직무분석 과정상 가설검증의 틀이 먼저 전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 수직적 구조의 틀에서 벗어나 다각도의 시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셋째, 수직적 사고의 강한 통제 범위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문제해결 기법에 관한 한 방법으로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이라는 방법이 있다. 이것은 제안하는 모든 문제들을 수용하되 비판하여서는 안 다는 것이 전

제되어 있는데, 한 사람보다 다수인이 많은 아이디어를 자유연상법에 따라 제안한 후 최적의 방법들을 찾아낸다는 것이다.

아이디어의 연상과정은 수평적 사고력의 틀이 최적안의 선택과정에서의 수직적 사고력의 검증과정이라고 생각하여도 되겠다.

이 방법이 여러 가지의 조건속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것은 엉뚱한 견해인 수평적 사고방법이 많은 아이디어를 창안해 주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한 분문에 놓여져 있는 사고의 관점을 다른 여러 부문으로 분산시켜 옮겨가게 되면서 문제현황과 핵심내용을 찾아 들억가게 하는 것이다.

넷째, 우연한 찬스나 기회를 활용하여야 한다. 인간의 사고력은 무궁무진하다. 자신의 경험에 의하든 학습된 지식체계에 의하든 그 폭이 너무나 넓고 방대하다.

사고력은 신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너무나 값진 아이디어가 한 순간에 창안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순간적으로 연상되었다가 사라져가는 신출귀몰한 착상과 아이디어를 잡아두기 위해서 메모를 하는 습관을 길러라.

우연한 찬스나 기호는 좀처럼 반복되어 나타나거나 연상되지 않는다. 순간으로 사라질 그 내용을 메모하고 그러한 발상이나 아이디어가 지는 가치들을 유효 적정하게 활용하여야 하겠다. 수평적 사고의 범주 속에서는 다양한 관점과 견해들이 줄지어 연상되어질 것이다. 그러한 가치들을 수직적 구도와 선입견을 묵살하여서는 안 된다. 다양한 상황으로 전개되는 구조속에서, 상호작용관계를 찾아내고 해결의 실마리도 찾아 들어가면서 업무를 수행하여 나가는 것이다.

단 형식과 원칙이 없는 수평적 사고를 권장한다고 하여 아무런 기준도 없이 판단하고 분석하여서는 안 된다. 분석목적과 내용의 범주 속에 접근하여 수평적 사고력을 발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본 자료는 저작권이 보호받고 있는
자료이므로, 무단 복제 및 전제는
삼가시기 바랍니다. ♣